



4면

전북대, '청림 옴부즈만' 출범

# 전주매일

www.jjmaeil.com

2025년 3월 19일 수요일 (음 2월 20일) 제3704호

비수술적 척추관절 류마티스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대표전화 (063)288-9700

## 호남 8개 지자체 “서해안 철도 건설 필요”

〈전북·전남·군산·고창·부안·목포·영광·함평〉

### 서해안 철도 건설 정책포럼

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신규 사업 반영 공동 건의

산업·물류·관광 연계  
서해안 경제벨트 구축 기대



18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서해안철도 건설 국회 정책포럼에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김영록 전남도지사를 비롯한 지역구 국회의원, 8개 지자체장이 서해안철도(새만금~목포)의 국가철도망 구축 필요성을 강조하며 건설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라남도를 포함한 호남 8개 지자체가 서해안철도(새만금~목포)의 국가철도망 구축 필요성을 강조하며 건설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북·전남 지역 8개 지방자치단체는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서해안철도 건설 국회 정책포럼'을 열고, 서해안철도를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이날 정책포럼에는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라남도, 군산시, 부안군, 고창군, 목포시, 영광군, 함평군이 참여했다.

서해안철도(새만금목포) 노선은 현재 대한민국의 U자형 국가철도망에서 유일하게 단절된 구간이다. 군산목포 구간이 연결되면 수도권과 서해안이 하나의 철도망으로 묶이며, 서해안 경제벨트가 완성된다. 이를 통해 △수도권과의 접근성 향상 △산업·물류 거점 기능 강화 △관광 활성화 △국가균형발전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서해안철도는 기존 서해선(경기충남)과 장항선(충남전북)과 연계해 인천에서 목포까지 연결되는 핵심 간선철도로 기능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서해안권은 글로벌 물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으며, 새만금 신공항·신항과 연계한 국가 물류체계 구축도 가능

해진다. 김진희 연세대학교 교수는 이날 발제에서 "서해안철도는 총사업비 4조 7,919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철도 사업으로, 산업·관광·물류가 어우러진 서해안권 발전을 견인할 중요한 인프라"라고 강조했다.

포럼 1부에서는 서해안철도의 국가철도망 반영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발표하고, 8개 지자체 단체장이 서명부를 국토교통위원회에 전달했다. 참석자들은 철도망 반영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퍼포먼스를 펼치며, 조속한 사업 추진을 촉구했다.

공동건의문에서 지자체들은 "서해안철도는 수도권과 서해안을 연결하는 핵심 교통축으로,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 사업으로 반영하고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포럼 2부에서는 대한교통학회 정진혁 회장이 좌장을 맡아 서해안철도 구축의 구체적인 방안과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김진희 연세대 교수의 발제를

시작으로, 한국교통연구원, 전북연구원, 전남연구원 등 철도·교통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사업 타당성과 추진 전략을 집중 분석했다.

전북연구원의 김삼영 박사는 "현재 서해안고속도로의 상습 정체를 해소하고, 친환경 교통망을 구축하기 위해 철도망 확충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철도는 도로 대비 물류비를 절감하고 탄소 배출을 줄이는 효과가 있어, 정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교통연구원 이호 본부장은 "서해안철도가 개통되면 군산~목포 구간 이동 시간이 70분 단축되고, 서해선과 장항선과의 연계를 통해 인천에서 목포까지 최단거리 이동이 가능해진다"며 "이는 지역 간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분석했다.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은 "철도를 놓아달라는 호남 서해안 지역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잘 알고 있다"며 "정책 포럼을 통해 서해안철도 건설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을 바란다"

고 밝혔다.

윤준병 국회의원은 "철도와 관광을 접목시키는 '서해안 철도관광 시대'를 열기 위해 철도 통과 지역 의원들과 함께 관련 법안 '서해안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제정법)'을 대표 발의해 국회 심의 중이다"며 "서해안 철도 건설을 통해 서해안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지난해 11월 호남 서해안권 지자체 기자회견 이후, 범국민 서명운동과 정치권의 관련 법안발의, 국회포럼까지 국가계획 반영을 위한 전략적인 대응이 이어지고 있다"며 "국가계획에 반영되고, 마침내 고창에 기차역이 생길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대한민국 서해안길에 U자형 철도망 구축은 전북자치도, 전라남도 서해안 및 새만금권 경제 활성화와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며 "익스트림 관광형 새만금 국가항, 새만금 국제공항,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등 물류교통 및

관광사업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김일준 군산시장은 "군산에서 목포까지 서해안 철도가 건설된다면 서해선~장항선~새만금선~서해안선으로 이어지는 군산 중심의 서해안 남북축 철도가 완성되어 지역 균형발전은 물론, 서해안지역 주민의 인적·물적 교통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서해안철도는 지역균형발전과 국가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필수 사업"이라며 "정부가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조속한 착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자치도는 이번 포럼을 계기로 정부 및 관계기관과 협력해 서해안철도의 국가철도망 반영을 위한 활동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정책적 당위성을 강조하며 정부와 국회를 설득해 사업 추진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만호 기자·군산=이재춘 기자  
고창=김영식 기자·부안=김석진 기자

난임부부·임산부  
마음까지 보듬다

전북권역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 공모 선정  
예수병원서 하반기 개소

전북특별자치도가 보건복지부의 '2025년 권역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 설치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1억2,000만원을 확보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선정으로 도비를 포함해 총 2억4,000만원을 투입, 올해 6월부터 전주 예수병원이 수탁해 심리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도는 난임 부부와 임산부를 위한 체계적인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도에 따르면, 도내 난임 환자는 2020년 4,356명에서 2023년 4,601명으로 증가했다. 또한, 2024년 산후조리 실태조사 결과, 산후 우울감 경험률이 2021년 50.3%에서 2024년 64.9%로 상승하는 등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의 심리적 어려움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전북자치도는 난임 부부 및 임산부 대상 맞춤형 심리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정신건강의학과·산부인과 전문의를 중심으로 간호사, 임상심리사 등이 협력하는 상담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주요 지원 내용은 △난임 및 임산부 및 출산 후 산모 상담 △자조모임 및 정서 지원 프로그램 운영 △지역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한편, 도는 현재 난임 시술비 지원, 한방 난임부부 지원, 난임 진단 검사비 지원 등 5개 사업에 총 39억원을 투입해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황철호 전북자치도 복지여성보건의료정책관은 "상담센터 설치를 통해 임신과 출산·양육 과정에서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난임부부와 산모, 가족들에게 도움이 되어주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 전북대, 의대생 654명 휴학계 모두 반려키로

“학칙대로 원칙적으로 처리할 것... 최대한 설득작업”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는 의대 학생들이 낸 휴학계를 모두 반려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전북대에 따르면 학칙에서 인정하는 사유가 아닌 기타 사유로 제출된 휴학계를 모두 반려키로 했다.

휴학이 반려될 경우 수업일수의 4분의 1선까지 등록금 납부와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학생들은 제적처리를 피할 수 없게 된다. 수강신청을 했다고 해도 결석이 계속되면 출석일수 미달로

F 학점을 받고 유급처리 된다. 현재 재학 중인 의대생 870여명 중 휴학을 할 수 없는 신입생 171명과 재학 중인 일부 학생을 제외하고 대부분이 휴학계를 제출했다.

이에 전북대는 휴학계를 낸 의대생 중 654명이 의대 증원 등 정책에 반해 휴학계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전북대 학칙에 따르면 일반휴학(취업 준비·해외 유학·가사 곤란 등)과

입대 휴학, 임신·출산·육아 휴학, 창업 휴학, 질병 휴학만 허용하고 있는데 휴학을 신청할 때는 사유서를 첨부하거나 학과장 확인을 받아야 한다. 휴학신청기간 마감일은 28일이다. 대학 관계자는 "올해는 학칙대로 원칙적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라며 "학

생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대한 설득작업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북대 의대는 24일부터 대면 수업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장은성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 지름길

주민과 소통하는 "의회" 더불어 발전하는 "완주"

# 완주군의회